

경제

광주 상업용 빌딩 돈벌이 안된다

작년 투자수익률 0.07% ... 전국 평균 훨씬 못미쳐
공실률 14.4% 서울의 두배 ... 임대료도 최하위권

광주지역 상업용 빌딩의 투자 가치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수익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였던 오피스 빌딩 투자수익률이 1년새 0.32%로 급락했다. 지난해 4분기 매장용 빌딩 수익률도 0.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지역 빈 상가와 빈 사무실은 지난해 9월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광주지역 오피스 빌딩 공실률 14.4%로 가장 낮은 서울(7.5%)의 두배에 달했다.

8%를 기록했다. 서울(7.1%)의 2배를 넘었고, 울산(16.5%), 인천(15.4%)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때보다는 0.1%포인트와 2.7%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LED산업 키웁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LED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받으며 박수를치고 있다.

기아차 '봉고III' 나왔다

모닝급 CUV도 내년 하반기 출시

기아자동차가 18일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2010년형 봉고III(사진)'를 선보였다. 기아차는 또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모닝급의 박스카 개발도 추진 중이다.

CD플레이어, 풀딩식 무선도어 리모컨키 등도 장착됐다. 기아차는 각종 편의 사양을 기본 장착한 '스페셜 패키지'와 다양한 안전장치를 기본 장착한 '세이프 패키지'를 신선했다.



UA는 쏘울보다 더 작은 경차급이지만, 쏘울의 디자인 철학을 이어받은 박스카 형태도 넓은 적재 공간과 실용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 살려달라”

광주상의, 양도세 감면 등 활성화 대책 총리·정당대표 등에 건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서)는 18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방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4가지 대책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지방 미분양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주택건설 실적 급감 등 지방 건설경기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회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신규 제외) 구입자에 대해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면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해주

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 오는 6월30일 끝나는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제도도 기한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완화와 지방소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용(LTV)을 현재 60%에서 10%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본교섭 또 결렬

정리하고·임금삭감 등 노사 이견 여전

금호타이어 노사가 18일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또 다시 결렬됐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13차 본교섭을 열어 정리하고와 임금 삭감 등에 대해 절충점을 모색했다.

만 노측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노사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노사 양측 변호인을 불러 '경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를 열었다.

대우일렉 인수 '4파전'

동양그룹 외 스웨덴 등 외국업체 입찰 참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인수전에 국내외에서 모두 4곳의 업체가 본입찰에 참가했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본입찰에는 국내에서 동양그룹의 동양매직과 유럽 최대 가전업체인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 사모펀드인 락윈 컨소시엄 등 외국계 3곳이 참가했다.

간 채권단이 수차례 시도했으나 최종 협상과정에서 매각 대금과 조건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 번이나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영상사업을 접는 등 사업규모를 줄이고 백색가전을 위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해왔다.

기아 고용인력 3만2720명 4위

5년간 일자리 최다 창출 기업은 삼성전자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자동차는 종업원 수 기준(2008년)으로 고용 상위 4위에 올랐다.

이러 GM대우(8천800명), 신한은행(6천111명), 아워홈(5천862명), 하인스반도체(4천891명), 신세계(4천885명), 우리은행(4천708명), 현대자동차(4천549명) 등이 일자리를 많이 늘린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됐다.

업은 역시 삼성전자로 2008년 기준 종업원 수가 8만4천462명에 달했다. 기아자동차는 3만2천720명으로 지난 2003년(3만1천278명)보다 1천442명 늘어 현대차, KT에 이어 고용 상위 10개 기업 중 4위를 차지했다.

Infographic showing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675.17 (-7.69), 코스닥지수 524.31 (+1.33), 금리 (국고채 3년) 3.76% (-0.04), 원·달러 환율 1,133.70원 (+5.4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with contact info and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a list of properties.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유)코리아랜드' with a table of job opening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매전문회사 에셋코리아' with contact info and a large table of auction listings.